

2025년 3분기

동남권 인구동향

부산 · 울산 · 경남의 인구 현황과 정책 이슈를 한눈에!

2025년 7~9월 호 Vol.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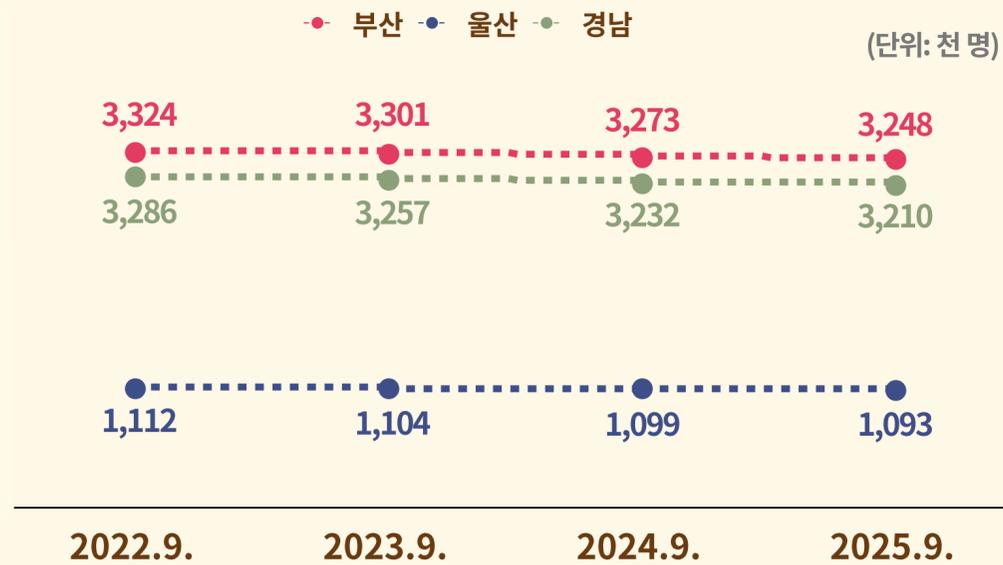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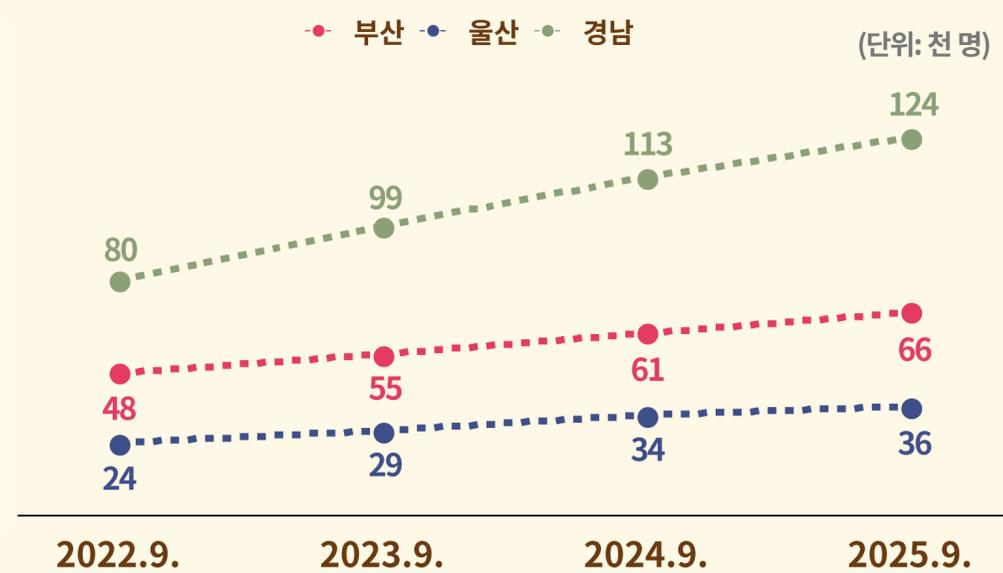
인구 추이

- ✓ 총인구는 부산 331만 4천 명(전년동월 대비 ▼19,508명), 울산 112만 8천 명(▼3,956명), 경남 333만 4천 명(▼11,232명)
-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

내국인 추이



외국인 추이



출생, 사망

- ✓ 출생아 수는 부산 3,345명(전년동분기 대비 ▲189명), 울산 1,343명(▲77명), 경남 3,389명(▲302명)
- ✓ 사망자 수는 부산 6,286명(전년동분기 대비 ▲34명), 울산 1,479명(▼2명), 경남 6,314명(▲30명)

출생



2024. 2분기

부산	3,156명
울산	1,266명
경남	3,087명



2025. 2분기

부산	3,345명
울산	1,343명
경남	3,389명

사망



2024. 2분기

부산	6,252명
울산	1,481명
경남	6,284명



2025.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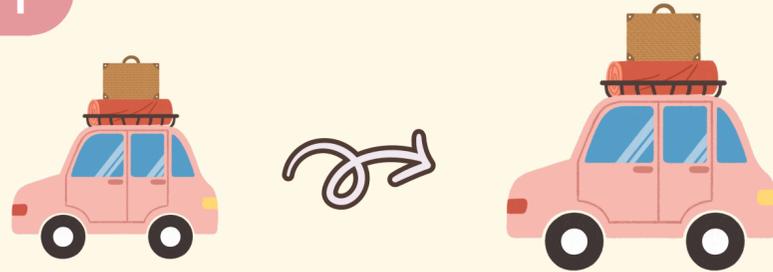
부산	6,286명
울산	1,479명
경남	6,314명

* 2025년 2분기가 최신 자료이며, 잠정자료를 사용함

인구 추이

- ✓ 순이동자 수(전입-전출)는 부산 -1,892명(전년동분기 대비 ▲2,201명), 울산 -1,000명(▲349명), 경남 -2,834명(▼2,183명)
- ✓ 부산 및 경남은 주로 서울, 경기로 순유출되었고, 울산은 부산, 서울로 순유출 됨

순이동자 수



2024. 3분기

부산 -4,093명
울산 -1,349명
경남 -651명

2025. 3분기

-1,892명
-1,000명
-2,834명

순유출 상위 시도



부산 서울(-1,137명)
울산 부산(-309명)
경남 서울(-895명)



경기(-859명)
서울(-276명)
경기(-521명)

부산

'25.3분기 주요 정책 이슈

1 "부산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25.08.18.)

부산시는 8월 26일부터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31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 일하는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 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 "청년, 부산에 '온나'... 전국 최초 체류패스 도입" (국민일보 / 2025.07.30.)

부산시가 전국 청년층을 겨냥한 체류 유도형 할인 패스 '**부산온나 청년 패스**'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하는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식음·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부산온나 청년 패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3 "부산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전용차량 완비" (KNN 뉴스 / 2025.09.23.)

부산시는 23일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수행기관에 전용 차량을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만9천여 가구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화재 등 **응급 상황을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16개 구·군의 17개 기관 모두 전용 차량을 구축한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부산

'25.3분기 주요 정책 이슈

4 "대학 유희 공간, 시니어 복합단지 된다… 부산시 '하하 캠퍼스' 조성" (부산일보 / 2025.09.16.)

하하 캠퍼스는 일명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년층을 위해 조성하는 시니어 복합단지다. 조성 예정지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부지(6만 3515m²)로, 시는 사업비 606억 원을 들여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하하 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장년층을 위한 기숙사 개념인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 조성도 추진한다.

5 "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매일신문 / 2025.07.17.)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기존 유·초·중·고 학생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고려한 정책이다. 중식비 지원을 받게 될 학교는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6 "부산 이전 기업에 최장 11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국제신문 / 2025.07.31.)

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간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입주 기업에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의 종료 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지방 광역시인 부산 기준으로는 현재 7년에서 8년으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기준으로는 10년에서 11년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울산

'25.3분기 주요 정책 이슈

1 "울산시, 카페와 영화 감상실 갖춘 스마트 경로당 만든다" (국제신문 / 2025.09.24.)

울산시는 경로당을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스마트 경로당 행복이(e)음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1곳을 대상으로 총 6억 원을 들여 '스마트 커뮤니티형', '스마트 네트워크형', '스마트 프로그램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경로당을 꾸밀 예정이다.

2 "울산시, AI 기반 돌봄서비스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뉴시스 / 2025.08.22.)

울산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도 나섰다. 광역시 차원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 최초다.

3 "울산 신중년 꾸준한 증가세,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늘어" (경상일보 / 2025.08.19.)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신중년 퇴직 인력에게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MZ 멘토링 사업'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구직 청년에게 양질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울산 중구 '큰애기 행복보드미' 사업 추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뉴시스 / 2025.07.25.)

울산시 중구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인 '큰애기 행복보드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큰애기 행복보드미' 사업은 기존에 별개로 제공되던 **보건의료,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보유자 또는 판정 대기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점돌봄군 등이다.

5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 운영...배움과 돌봄 통합 제공" (연합뉴스 / 2025.09.19.)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는 장애인들에게 배움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다.

일상생활·신체활동·정서 지원, 사회성 증진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립생활훈련, 직업·경제 교육, 건강·안전 교육 등 **배움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해솔주간이용센터와 남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별',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등 총 3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6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합니다" (뉴시스 / 2025.08.25.)

법무부와 복지부는 24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대학을 비롯한 전문대 20곳과 일반대학 4곳을

포함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두 대학은 법무부·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학위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25.3분기 주요 정책 이슈

1 "창원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첫 운영 개시" (뉴스경남 / 2025.09.11.)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의창구 대신면 대방리에 조성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9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농장은 작년 12월 준공되었으며, 1,244m² 규모의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양액재배 시설 등 스마트농업 장비를 갖추고 있다.

2 "경남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추진" (브릿지경제 / 2025.09.28.)

경남도는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으로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1인당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신중년(50~64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9개 시·군(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함안·하동·산청)에 소재해야 한다.

3 "창원상의, 경남비자지원센터 개소... '광역형 비자 사업 전담'" (연합뉴스 / 2025.09.09.)

법무부는 올해 제조업과 함께 조선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선정했다.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앞으로 비자 발급 상담, 우수 외국 전문 기술인력 수급, 체류자 정주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과 외국 인력 모두가 만족하는 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부산·김해·양산 19일부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무료" (울산매일신문 / 2025.09.19.)

9월 19일부터 부산, 김해, 양산의 버스·도시철도·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추가 요금 없이 2번 환승해 3개 교통수단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 개통 예정인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중앙) 도시철도와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에도 동일하게 광역 무료 환승을 적용하고, 앞으로 거제시 창원시(진해 용원) 울산까지 광역 환승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5

"경남도·통영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1조 인프라 구축" (경남도민일보 / 2025.07.30.)

경남도와 통영시가 1조 원대 투자로 세계적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만드는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통영 도산·도남 권역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1400억 원을 들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요트 여행은 물론 해상택시, 수륙양용버스 등 지역 특화 해상관광교통도 도입한다.

6

"밀양·창녕·하동 기회발전특구 지정...경남도, 전국 첫 '200만 평' 달성" (매일경제 / 2025.07.29.)

경남도가 밀양·창녕·하동 3개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받아 전국 최초로 도 단위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660만m²을 달성했다. 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창녕 대합·영남산단, 하동 대송산단 일원 총 221만m²가 특구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고성(이차전지), 통영·창원(수소·해양) 지역을 시작으로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특구 총량을 모두 채웠다.